

#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9.17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## □ 국내

- 현대차, 수도권 수소버스 전환 이끈다...2032년까지 480대 도입 추진  
(‘26.9.16, 데일리안)
  - 현대차는 선진그룹 등과 협약을 맺고 수도권 주요 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하며 차량 공급부터 충전 인프라 구축·정비 교육까지 지원함
  - 선진그룹은 김포·파주 차고지의 기존 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하고, 2032년까지 수소버스 총 480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
  - 현대차는 KD운송그룹·K1모빌리티에 이어 선진그룹까지 수도권 대형 운수사 3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소 대중교통 전환 확대에 나섬
- 한자연, 국내 유일 ‘친환경 상용차’ 통합 평가 인프라 구축  
(‘26.9.16, 서울경제)
  -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0월 창원 국가산단 확장구역에 국내 유일·최대 용량의 대형 전기·수소상용차 전용 통합 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함
  - 총 199억 원을 투입해 전기구동시스템 성능평가 장비와 실도로 주행모사형 HILS 등 5종의 핵심 평가 장비 구축을 완료함
  - 기획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주기 평가를 지원해 국내 부품기업의 기술 자립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임

- 두산퓨얼셀, 美데이터센터 타고 가동률 ↑..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  
(‘26.9.16, 파이낸셜뉴스)
  - 두산퓨얼셀의 올해 상반기 국내 공장 가동률은 86%로 지난해보다 7% 포인트 상승했으며 미국 자회사 하이엑시엄과 8,236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용 인산형 연료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함
  - 올해 누적 수주액은 약 1조1,100억원으로 늘었고 신규 물량을 올해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공급하면서 하반기 공장 가동률 90% 돌파와 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거론됨
-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한자리에...‘WHE 2026’ 글로벌 비즈니스 장 연다 (‘26.9.16, 에너지데일리)
  - ‘WORLD HYDROGEN EXPO 2026’은 11월 4~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며 약 20개국 200여개 기업이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임
  - 컨퍼런스와 ‘H2 비즈니스 파트너십 페어’ 등을 통해 주요국 수소정책·공급망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수출·사업화 기회를 확대함
  - 조직위원회는 전시 규모 확대를 넘어 상담이 실제 계약·투자·해외 프로젝트 참여로 이어지는 실질적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
- [단독] 전기·수소차 도입 늘었지만...관용차 80% 여전히 내연차  
(‘26.9.16, 머니투데이)

## □ 해외

- [에스토니아] 스타게이트 하이드로젠, 전해조 생산시설 증설에 EU 보조금 2,100만 유로 확보 ('26.9.15, Hydrogen Insight)
  - 에스토니아 전해조 제조사 스타게이트 하이드로젠은 EU 혁신 기금에서 2,060만 유로(2,380만 달러, 약 326억 원)의 보조금을 확보해 탈린 생산 시설을 증설함
  - 회사는 보조금으로 기존 140MW인 전해조 연간 생산능력을 250MW로 늘릴 계획이라고 Hydrogen Insight에 확인함
  - 2025년 6월 문을 연 탈린 공장은 수요에 맞춰 최종적으로 1GW를 넘는 생산능력까지 확대할 계획임
  - 보조금은 EU 배출권거래제 수익을 재원으로 유럽기후·인프라·환경집행기관이 지급함
  - 스타게이트는 2024년 EU 공동유럽이해관계중요프로젝트 프로그램 보조금과 UG Investments 지분투자자 4,200만 유로(약 664억 원)를 조달했고 2025년 시리즈A에서 1,100만 유로(약 174억 원)를 추가 확보함
  - 스타게이트 전해조의 기존 고객에는 핀란드 Fortum과 인도 BGR Tech가 포함됨
  - 마르코 비르케바우 CEO는 이번 보조금이 회사의 중요 이정표이며 기술과 제조전략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강조함
  - 회사는 10MW 가압 알칼라인 Aurora를 포함한 제품군을 생산하며 Aurora는 MW당 14.4m<sup>2</sup>의 설치면적과 자체 제작 5MW Starbase 스택 2기로 구성돼 동종 제품 가운데 최고 수준의 공간효율을 내세우고 있음

○ [캐나다] 캐나다 GH Power, 알루미늄 기반 무전력 수소 첫 상업 오프테이크 계약 확보 ('26.9.15, Hydrogen Insight)

- 캐나다 GH Power는 전기를 쓰지 않는 알루미늄-물 반응기 기술의 첫 상업 적용으로 온타리오주 해밀턴 시설 생산수소의 구매처를 확보함
- 시설 가동 후 최초 2년간 Change Energy Engineering 자회사인 수소 유통·충전기업 Hone에 연간 최대 365톤을 공급함
- 폐알루미늄과 물로 수소를 생산하고 반응열로 증기터빈 발전이 가능하며 산화알루미늄·수산화알루미늄도 생산함
- 알루미늄은 공기와 접촉하면 물과의 반응을 막는 얇은 산화막이 생기지만 순수 알루미늄을 물에 먼저 노출하면 산소가 결합해 산화알루미늄과 수소가 생성됨
- GH Power의 구체적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국 GenHydro는 스테인리스 반응기의 촉진제 촉매로 알루미늄 합금 표면 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개발함
- 이번 계약에서 GH Power가 부산물인 열과 화학제품을 어떻게 활용·판매할지는 공개되지 않음
- 계약은 GH Power의 첫 상업 오프테이크로 해밀턴 시설 전체 생산량을 포괄하며 회사는 향후 시설 확대를 계획함
- 데이브 화이트 CEO는 이번 계약이 중요한 상업 이정표이고 Change Energy의 다년 계약은 반응기 수소의 품질과 일관성을 반영하며 이 기술은 연소·탄소배출 없이 같은 반응기에서 상업용 수소와 고부가 소재를 생산한다고 강조함